

한우물 30년, 마지막 만년필 수리공 朴泰永 대의원

“파카—몽블랑—셸파 등 어떤 고장도 신제품으로”

신사들 필수품이던 60년대엔 금지 대단

가슴에 만년필을 꽂고 다녀야 일급신사가 되던 시절, ‘소매치기’가 가장 눈독 들이던 파카만년필을 아십니까?

불펜의 간편함에 밀려 우리 곁에서 멀어져간 ‘만년필의 영광’을 돌아보게 하는 박태영씨(51·성북구 명륜동 3가 1)는 남대문시장에 혼자남은, 어쩌면 서울시내에 단 한명뿐인 만년필 전문수리공이다.

만년필 최고급 귀중품이던 50~60년대 수리공겸 상인 40여명이 이곳에 몰려 호황을 누리다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모두 사라진 지금도 박씨는 도깨비시장으로 통하는 남대문사가 2층에 자리한 반평짜리 가게에 남아 고급 필기구의 옛영화를 지키고 있다.

30년동안이나 잉크물은 손으로 살아온 그는 어떤 치유불능의 만년필이라도 20여분 정도만 손을 보면 신제품과 비슷하게 변신시킨다.

그래서 이 시장안에서 그는 만년필박사로 호칭되고 있으며 지금껏 그를 거쳐 재생된 것만도 십여만 개에 이른다. 지난 9월15일 결성된 “자연보호실천회” 부회장이기도 한 박대의원은 국내 300여개 명산

을 순례한 산악인으로서의 경력도 만만찮은 박씨가 한길을 고집한 것은 재생되는 만년필을 바라보는 특유의 희열과 스러져가는 만년필의 품격을 지키고 싶은 은밀한 바람같은 것 때문이라고 실토한다.

한번 쓰고 버리는 불펜에 밀려 “쓸쓸”

“한번 쓰고 쓸모없으면 미련없이 버리는 불펜은 현사회풍토와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쓸수록 애정이 더하는 만년필은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이 2차대전 유럽전선 종식조인때 사용하는 등 역사적 현장에도 꼭 등장하는 품위의 상징물입니다.”

전남 영암출신으로 20대 초반에 상경한 그의 만년필인생은 모두가 어렵게 살던 50년대말 트렁크에 양키물건을 넣어 팔러다니는 가방장사에서 비롯됐다. 미군부대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중고만년필을 어렵게 구해 팔기도 하면서 그 귀한 중고품을 그럴듯하게 고쳐놓는 눈썰미와 손재주로 남대문 최고의 솜씨라는 명망을 얻기도 했다.

파카 몽블랑 셸파 등 만년필의 고전으로 우리 귀에 남아있는 고급품 1개를 팔아 쌀 한가마를 남기던 호시절이 있었다.

최근 불고 있는 복고풍을 타고 외국에서는 만년필이 인기를 되찾고 있다고 전하는 박씨는 수십만원하는 고급품을 조그만 부주의로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도 만년필을 애용하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몇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떨어뜨려 축을 휘게하지 말고 뚜껑을 반드시 닫아 축에 잉크가 마르게 하지 말며 장기간 안쓸 때는 잉크를 빼놓아야 한다고.

한편으로 그의 인생노트에는 산에 남긴 자취가 적지않다. 외길을 걸어 큰 욕심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하듯 70년대초부터 주말이면 산행에 나서왔고 어느덧 알려진 국내 산이라는 산은 모조리 등정한 산사나이가 됐다. <스포츠서울 91.7.28>



〈북한산 국립공원에 올랐을 때의 박대의원〉

오대산에 올려퍼진 “웨딩마치”

산악인 성양수회원—정성희양 산상결혼

예복대신 등산복에 야생화장식
조난구조로 인연... 등산하며 사랑키워

산악인 성양수회원(38 노인봉 산장 관리인) 지난 9월8일 해발 1,338m인 강원도 오대산 제3봉인 노인봉 정상에서 산상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등산중 조난을 당해 사경을 헤매다 산장지기로 있는 성씨에 의해 생명을 구한 정성희씨(28 홍익대 미술대학원 동양학과 2년)로 주례는 원로산악인 유평수씨(79)가 맡았다.

이날 결혼식에는 등산복 차림의 신랑 신부가 머리와 가슴에 야생화를 꽂고 나와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를 한껏 풍기는 가운데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훈련교수 김용남씨(45)의 아코디언 반주속에 축하, 축사가 이어지는 등 20여분동안 흥겹게 진행됐다.

‘오대산 탈보’로 더 잘 알려진 성씨와 정씨의 결혼식에는 많은 산악인과 양가의 가족 친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예사롭지않게 맺어진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들의 만남은 신부 정씨가 경희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4학년때인 지난 87년 11월 친구들과 함께 오대

산으로 졸업여행을 오면서 비롯됐다.

당시 정씨 일행은 등산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정씨는 몸이 약해 노인봉 산장부근에서 혼자 떨어져 탈수현상을 일으킨채 실신해 있었다.

마침 성씨는 급한 불일로 하산하던 중 조난 당한 정씨를 발견, 인공호흡으로 소생시켜 산장으로 옮겨 극진히 보살피며 생명을 건져줬다.

이때부터 정씨는 주말이면 ‘생명의 은인’인 성씨를 찾아 산장까지 험난한 산행을 마다하지 않았고 성씨 또한 정씨의 정성에 탄복,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2년 청주교대를 나와 제주도에서 교편생활도 하는 등 파란많은 인생을 살아온 성씨는 81년 동계 소백산맥 단독종주 등반, 83년 5대강 카누탐사, 83년 사이클 해안도로일주를 하는 등 80년대 국내 산악계에 굵직한 자취를 남긴 산악인이다.

지난 85년 8월에는 41박42일에 걸쳐 스포츠서울 창간기념 차령산맥 주능선 종주등반을 끝으로 산악활동을 마친후 86년 11월부터 오대산 산장에 혼자 머물러 왔다. <스포츠서울 91.9.11>



▲ 성양수 정성희 커플이 오대산 노인봉 정상에서 많은 산악인들의 축하속에 산상결혼식을 올리고 있다.